

사상체질과 전문의의 진료영역에 대한 현황 분석

오승윤 · 박수정*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학과 교수

Abstract

Current Status and Scope of Practic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pecialists

Seung-Yun Oh · Soo-Jung Par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urrent clinical domain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CM) specialists through analysis of published clinical studies and hospital practice scopes.

Methods

Clinical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 and Immunology Medicine up to 2025 (Vol. 37, No. 2) were reviewed, including case reports and retrospective or prospective studies. Diseases were categorized into six domains. In parallel, clinical fields listed on websites of university-affiliated Korean Medicine hospitals were analyzed using the same criteria.

Results

Among 1,333 papers, 321 were clinical studies. Major domains included cardiovascular·neurological, endocrine·metabolic, dermatologic, gastrointestinal, and neoplastic disorders. Common diseases were cancer-related symptoms, cerebrovascular disease, Parkinson's disease, diabetes mellitus, and atopic dermatitis. At 13 university hospitals, 20 SCM professors mainly managed endocrine·metabolic and cardiovascular·neurological diseases. Frequently listed items were coldness syndrome, cancer, allergy,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cope of Practice of SCM specialists should be redefined around key Sasang-related conditions, and specialty renaming may be considered in response to changing clinical demands.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orean Medicine, Specialist, Scope of Practice

Received 07, November 2025 Revised 10, November 2025 Accepted 18, November 2025

*Corresponding author: Soo-Jung Park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medical center, 46,
Eoeun-ro, Wansan-gu, Jeonju-si, Jeonbuk-do, Republic of Korea
Tel: 063-220-8690 Fax: +82-63-291-9312, E-mail : taorgi@hanmail.net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 and Immune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I. 서론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에 따르면, 한의사의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2001년부터 시행된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전문과목 역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중 6개의 전문과목은 양방의 대응 전문과목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진료영역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침구과와 사상체질과는 특정 질환이 아닌 치료 술기 또는 진단·치료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진료영역이 다소 불명확하다. 침구과 교과서에서는 각 임상과 질환에 대한 침구치료 술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상체질과 교과서 역시 다양한 질환군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사상체질과 전문의는 가정의학과와 유사하게 포괄적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나, 학문적 정체성과 전문진료영역을 재정립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상체질의학회가 2024년 4월 '사상체질면역의학화'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체질과 면역을 중심으로 한 학술적·임상적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과 관련 문헌 고찰과 현황 분석을 통해 사상체질과 전문의의 임상적 역할과 지향점을 모색하고, 향후 전문영역 확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사상체질면역의학회지에 게재된 임상연구 수집

1) 선정 및 제외 기준

사상체질면역의학회지에 2025년 37권 2호까지 게재된 논문 중 임상연구를 수기로 수집하였다. 실제 임상에서 진료했던 질환을 중심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증례보고, 후향적 관찰연구, 전향 연구만 수집하였으며, 설문조사나 코호트, 단면연구, 건강도 평가 등은 제외하였다.

2) 분류기준

논문에 제시된 핵심 증후를 중심으로 질환명 또는 증상명을 기록하였으며, 뇌혈관질환, 중풍, 뇌경색 또는 냉증, 수족냉증, 아랫배냉증 등 유사한 질환명과 증후는 통일하였다. 해당 질환의 임상영역을 순환·신경 질환, 내분비·대사 질환, 피부질환, 소화기질환, 중앙 질환 등으로 분류하였다.

3) 빈도수 분석

동일 주제의 논문 편수를 조사하여 질환별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편 이하의 질환은 제외한 후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2. 전국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사상체질과의 진료영역 조사

1) 조사방법

2025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전국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상체질과 교수의 진료 분야를 조사하였다.

2) 분류기준

게시된 질환명 또는 증상명을 통일하여 정리하였으며, 임상영역은 앞선 임상연구 분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명 이하의 빈도를 보인 질환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별 분류 결과, 순환·신경계 질환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분비·대사 질환 42건, 피부질환 30건, 소화기질환 28건, 중앙 질환 19건, 기타 36건으로 나타났다. 개별 질환으로는 암 관련 증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혈관질환(중풍, 뇌경색 등) 14건, 파킨슨병 및 당뇨병이 각각 13건, 아토피피부염이 10건 순이었다 (Figure 1).

III. 연구결과

1. 사상체질면역의학회지에 게재된 임상연구 중 주요질환 분석

2025년 제37권 제2호까지 게재된 전체 논문은 1,333편이었다. 연도별 평균 논문 수는 1990년대 28.7편, 2000년대 51.6편, 2010년대 38.4편, 2020년대 26.2편이었다. 이 중 중례보고가 295편, 후향적 연구 20편, 전향적 연구 6편으로 총 321편의 임상연구가 수집되었으며, 설문 및 단면·코호트 연구 16편은 제외되었다. 질환별 2건 이하의 논문 108편을 제외한 후, 임상영역

2. 전국한외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사상체질과의 진료영역 분석

전국 13개 한외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총 20명의 사상체질과 교수가 진료 중이었다. 진료과 명칭은 사상체질과, 사상체질의학과, 사상체질면역의학과, 한방내과⁵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통합암센터, 중풍뇌질환센터, 한의면역암센터, 퇴행성뇌질환센터, 체질면역센터 등의 센터명과 체질면역클리닉, 한의암클리닉, 비만클리닉, 체질개선클리닉 등의 명칭이 병행 사용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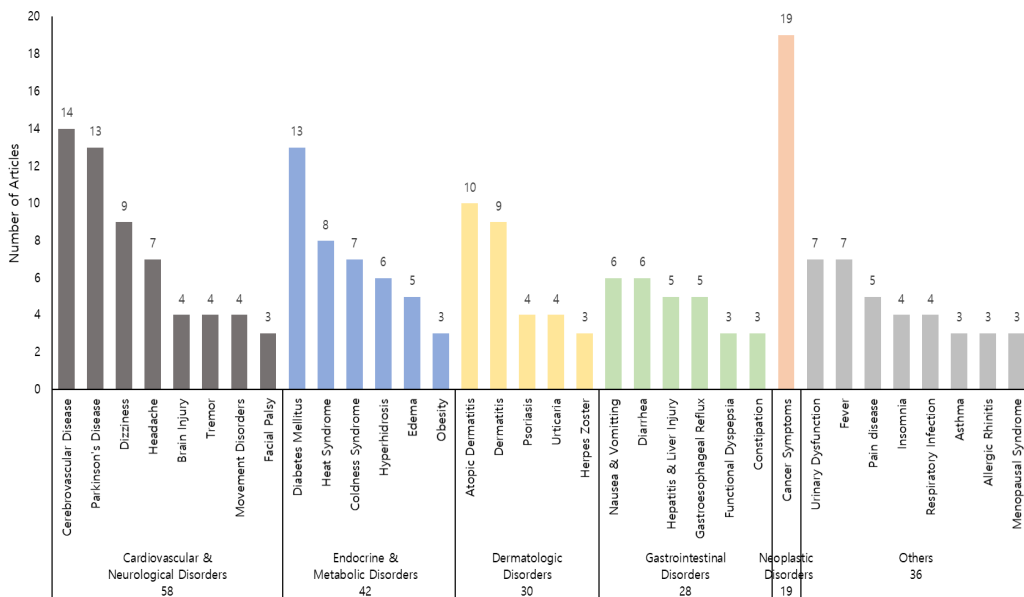


Figure 1. Distribution of major diseases in clinical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 & Immune Medicine

임상영역별로는 내분비·대사 질환이 33.0%로 가장 많았고, 순환·신경계 질환 26.7%, 소화기질환 10.2%, 알레르기·면역 질환 8.0%, 피부질환 6.8%, 종양 질환 6.8%, 호흡기질환 4.5%, 체질개선 및 기타 4.5% 순이었다. 개별 질환별로는 냉증(수족냉증, 하복냉증 등), 암 및 암 후유증, 알레르기(과민체질)가 각각 11명

(55%)의 교수가 진료분야로 표방하여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비만이 10명, 대사증후군·다한증·체질개선이 8명, 뇌혈관질환(중풍, 뇌경색) 및 어지럼증이 7명, 만성피로·체중감소·열증(족열감 등)이 6명 순이었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Scope of Practice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epartments of Univeristy-affiliated Korean Medicine Hospitals

Category of Disorders	Name of Disease(or Symptom)	No* . of Specialists
Endocrine & Metabolic Disorders 33.0%	Coldness Syndrome	11
	Heat Syndrome	6
	Obesity	10
	Hyperhidrosis	8
	Metabolic Syndrome	8
	Weight Loss	6
	Fatigue	6
	Dibetes Mellitus	3
Cardiovascular & Neurological Disorders 26.7%	Cerebrovascular Disease	7
	Dizziness	7
	Headache	6
	Palpitation	4
	Tremor	5
	Dementia	3
	Parkinson's Disease	4
	Hypertension	4
	Movement Disorders	3
	Autonomic Dysfunction	4
Gastrointestinal Disorders 10.2%	Inflammatory bowel disease	5
	Functional Dyspepsia	4
	Irritable Bowel Syndrome	5
	Diarrhea	4
Allergic & Immunologic Disorders 8.0%	Allergic disease	11
	Allergic rhinitis	3
	Skin disease	5
Dermatologic Disorders 6.8%	Atopic Dermatitis	4
	Urticaria	3
	Cancer Symptoms	11
Neoplastic Disorders 6.3%		
Respiratory Disorders 4.5%	Asthma	5
	Cough	3
Constitution / Others 4.5%	Constitutional Improvement	8

* The number indicates how many of the 20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professors at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s nationwide reported treating the same diseases.

IV. 고찰 및 결론

사상의학은 한국의 독창적인 의학체제로, 인간의 생리적·병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네 가지 체질 유형으로 구분하여 치료하는 개인 맞춤 의학이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으로 인해 사상의학 관련 교과서에서는 사상체질의학을 거의 모든 질환에 적용 가능한 진단·치료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체질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는 체질의학에 기초한 전통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과 종사자, 사상체질과 수련의 수 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상체질과 수련의 감소와 학회지 논문 수의 감소가 동반되며, 전문영역으로서의 위상은 정체 내지 위축되고 있다. 사상체질면역의학회에서는 사상체질과를 “체질진단과 체질병증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의사 전문과목”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의 진료영역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의료의 전문의 제도는 일반의가 수행하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질환에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 의료전달체계의 상위분야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³⁾에 비하여, 사상체질과의 광범위한 진료범위는 오히려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과 차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체질진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와 환자들의 질환 중심 진료 선호 현상이 맞물리며, 사상체질과의 진료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학회지 게재 논문과 대학 부속한방병원의 진료영역을 분석하여 사상체질과의 임상적 강점을 간접적으로 탐색하였다. 임상논문 분석 결과, 순환·신경계 질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논문의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과거 대학병원 사상체질과에서 중풍 등 뇌혈관질환 환자를 다수 진료하였고 이후 관련 진료의 축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까지 중풍은 한방의료기관의 주요 진료분야 중 하나로, 입원환자 1위의 상병이었으나, 2010년대 이후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중풍환자의 숫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⁴⁾. 반면 내분비·대사질환(당뇨병, 열증, 냉증, 비만, 다한증 등)은 사상체질의학의 한열이론 및 대사 조절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현재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부질환(아토피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건선 등) 역시 체질별 병리개념과 상통하여 임상적 친화성이 높은 영역이다.

한외과대학 부속한방병원의 진료영역에서 표방되는 빈도와 게재된 논문수를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냉증, 열증, 암, 다한증, 뇌혈관질환, 두통, 어지럼증, 피부질환 등은 임상 표방 빈도가 높으면서, 논문 게재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해당 질환을 중심으로 사상체질과의 핵심 진료영역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체질개선, 대사증후군, 비만 및 체중감소, 피로 등은 임상 표방 빈도는 높았으나 이에 대한 임상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대사증후군은 치료적 임상증례가 보고되지 않았고 코호트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는데, 이는 해당 질환이 치료보다 예방 및 관리의 성격이 강조되는 영역으로 인식된 결과일 수 있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서 한방의료의 주 이용목적은 질환치료와 건강증진으로²⁾, 체질개선은 이러한 임상 수요에 부합할 수 있으나, 진료 목표가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임상적 효과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실제 임상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료영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파킨슨병, 아토피피부염, 당뇨병, 설사 등은 학회지 내 임상논문은 비교적 축적되어 있으나, 임상표방 빈도가 낮았다. 이는 한방내과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등 타과와 진료영역이 중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1) 사상체질면역의학회 홈페이지, 전문의 제도.
<https://www.esasang.or.kr/html/?pmode=sintroduction>

2)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130&act=view

사상체질 또는 면역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기능성 소화불량, 위식도역류, 변비, 호흡기감염, 발열 등은 임상 표방 빈도와 논문수가 모두 적은 질환군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환들은 대체로 1차 진료의 흔한 증상으로, 전문과목으로서의 난이도가 높은 전문영역으로 보기 어렵고 타과의 차별화가 어려운 질환으로 사상체질과의 중점 진료영역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Table 2).

한편 의료계에서는 사회적 수요와 임상 역할 변화에 따라 전문과목명을 지속적으로 개편해왔다.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2002),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2005),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2011)로, 흉부외과는 심장혈관흉부외과(2022)로 전문과목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전문과의 정체성과 임상영역을 재정립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2016년부터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시범 도입되고⁵, 세부전문의 제도가 추진되는 등⁶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개별 전문의의 수급추세 및 전망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등⁷ 전문의 제도의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반응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번도 진료과목 명칭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다시 한의사회에서 전문의 제도를 보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상체질

과 또한 ‘사상체질면역의학과’의 명칭 개편을 검토함으로써 체질과 면역을 두 축으로 한 새로운 전문영역 정립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사상체질과 전문의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의학 전문과목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며, 현대 임상에서의 한의학적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회지 내 임상논문과 대학부속한방병원의 표방 영역을 분석하여 사상체질과의 진료영역과 임상적 강점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해석에 한계는 있으나 한의사 전문의 제도와 관련하여 최초로 시도된 고찰이라는 의의가 있다. 사상체질과 전문의는 냉증, 열증, 암 증상, 다한증, 뇌혈관질환, 두통, 어지럼증, 피부질환 등을 중심으로 진료영역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의 변화에 따른 전문의 명칭 변경 등 제도적 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V. 사사

본 과제(결과물)은 2025년도 교육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원으로 전북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2025-RISE-13-WSU)

Table 2. Distribution of Clinical Domains and Publication Counts in Department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t University-affiliated Korean Medicine Hospitals

	Clinical Domain Endorsed by ≥ 5 Faculty Members	Clinical Domain Endorsed by ≤ 4
Number of Publications ≥ 5	Coldness Syndrome, Heat Syndrome, Cancer Symptoms, Hyperhidrosis, Cerebrovascular Disease, Headache, Dizziness, Skin disease	Parkinson's Disease, Atopic Dermatitis, Diabetes Mellitus, Diarrhea
Number of Publications ≤ 4	Allergic disease, Constitutional Improvement, Metabolic Syndrome, Obesity, Weight Loss, Fatigue, Tremor, Inflammatory Bowel Disease, Irritable Bowel Syndrome, Asthma, Palpitation, Hypertension, Autonomic Dysfunction	Functional Dyspepsia, Gastroesophageal Reflux, Constipation, Respiratory Infection, Fever, Cough, Urinary Dysfunction, Nausea & Vomiting, Edema, Hepatitis & Liver Injury, Urticaria, Psoriasis, Allergic Rhinitis, Brain Injury, Dementia, Movement Disorders, Insomnia, Facial Palsy, Herpes Zoster, Menopausal Syndrome, Pain disease

VI. 참고문헌

1. Shin SW, Kim YH, Hwang MW. Diagnosis and treatment principle in Sasang medicine: original symptom,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2016;5(2): 99-104. DOI: 10.1016/j.imr.2016.03.005.
 2. Kim HJ, Lee SW, Kim JY.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Constitutional Medical Care Service.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3):166-174.
 3. Lee SK. Standing Issues and Policy Tasks of the Korean Dental Community; The improvement of the dental specialist program. Journal of Korean Dental Association 2010;48(2):91-94. (Korean) DOI: 10.22974/jkda.2010.48.2.001
 4. Kim MK, Han CH. E-mail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clinical practice and activation measures for Korean medicine in stroke care. J Korean Med. 2017;38(3):143-159. (Korean) DOI: 10.13048/jkm.17032
 5. Jang YS. Impact of Hospitalist System on Inpatient Utilization and Outcome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25. Seoul
 6. Kwak YH, Park JD. Background and necessity of implementing the subspecialty of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in Korea. Pediatr Emerg Med J 2020;7(2):57-60. (Korean) DOI: 10.22470/pemj.2020.00178
 7. Chae YM, Kim JW, Lim JH. Estimation of Demand and Supply for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Specialties in Korea (II): Demand Estimation and Demand-Supply Balance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11;23(1):80-88. (Korean)
- <저자들의 소속 및 지위>
 오승윤/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과/
 교수
 박수정/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과/
 교수